지식경제부	보도참고자료	http://www.mke.go.kr

문의 : 소프트웨어융합과 최진혁 과장(02-2110-5151), 임성민 사무관(5156)

「제1차 한중 전자상거래 정책협의회」개최

- 한중 FTA 대비 전자상거래 분야 협력강화, RFID/전자문서 시범사업 추진 논의 -

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는 2012.5.8(화) 오후 중국 북경 상무부 회의실에서 제1차 한·중 전자상거래 협의회를 개최하였슴.

금번 협의회는 지난해 11월 리커창 중국 부총리 방한시 체결된 "한·중 전자상거래 정책협의회 설립 양해각서(MOU)"에 따른 후속조치로 개최되었으며,

우리 측은 지식경제부 박일준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을 수석대표로 한무역협회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관계자들이, 중국측은 상무부 니에린하이 부국장을 수석대표로 하고 국제전자상무중심, 중국대외무역대학, 한중 무역협력센터 관계자들이 참석하였슴.

금번 협의회에서는 양국 전자상거래 관계자들간 처음으로 개최된 회의라는 점을 감안하여 양국의 전자상거래 현황과 정책을 소개하는 한편, 중국내 한국 인터넷서비스 법인의 설립 허용, 디지털 온라인 거래에 대한 무관세·차별금지 조항의 명문화 등 한중 FTA에 대비하여 양국간 전자상거래 분야 협력방안 등을 협의하였슴.

이와 함께, 무역협회에서는 지난 2009년 개통된 한·중 무역투자정보망의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한·중간 전자 선하증권 도입을 위해 양국 실무자간 협의회 구성 및 공동연구를 제안하였슴.

* 한·중 무역투자정보망 : 2008년 한국 지경부와 중국 상무부간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2009년 11월 개통하였으며 2011년말 현재 2,300건의 자료 등록

* 선하증권이란 수출자가 화물을 선적했다는 증서로서, 한중간 수출입량이 연간 약 360만건(수출 140만건, 수입 220만건)으로 선하증권 도착 지연시 대금지불 및 화물수령도 지연되는 등 문제 발생

또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는 중국진출 한국기업들의 RFID 사업에 대한 중국 당국의 협조를 요청하고 중국내 RFID 시험인증기관 선정 및 양국간 상호인증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며, 특히 양국간 유학생 교류규모가 연간 12만명에 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한·중 대학간 온라인 졸업증명서 유통을 위한 시범사업도 제안하였슴.

* 재한 중국유학생 5.8만명, 재중 한국 유학생 : 6.4만명 ('10년 기준)

중국측은 중국의 전자상거래 현황 및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우리측의 다양한 협력사업 제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양측은 금번 회의를 계기로 양국 관계자간 전자상거래 정책협의를 보다 활성화해 나가기로 하고, 다음 회의는 내년중 한국에서 개최키로 하였슴.